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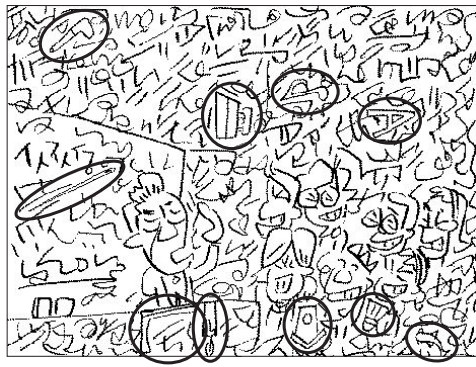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 121 >



찾아보세요 A자, 못, 은행잎, 갈매기, 고추, 펜촉, 셔플록, 잠자리, 다리미

알미운 여자

- 10대: 얼굴이 예쁘면서 공부까지 잘하는 여자.
- 20대: 성형수술을 했는데 티도 없이 예쁜 여자.
- 30대: 결혼 전에 오만 짓 다 하고 돌아다녔는데도, 서방 잘 만나서 잘만 사는 여자.
- 40대: 골프에 해외여행에 놀러 만 다녀도 자식들이 대학에 척척 붙여주는 여자.
- 50대: 먹어도, 먹어도 살 안 쎄는 여자.
- 60대: 건강 북도 타고났는데 돈 북까지 타고난 여자.
- 70대: 자식을 시집 장가 잘 가고, 서방까지 멀쩡한 여자.



지난주 정답

프라이팬, 음료, 새집, 바늘, 셔플록, A자, 다리미, 송사리, 담배피이프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서기철<광주시 동구 산수 2동> 김혜선<광주시 남구 주월 1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삼성 세계 두번째 16MD램 개발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지난 1992년 64MD램을 세계 최초로 발표한 이후 세계의 선두권 자리를 달리고 있다. 앞선 1989년 4월 25일 삼성전자는 세계 두번째로 16MD램 개발에 성공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강국으로의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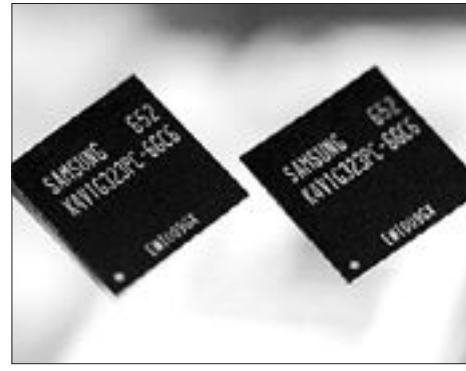
삼성 1980년대 초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고급 기술 인력 확보의 어려움, 공장 건설에 필요한 특수설비, 불투명한 시장 전망 등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반도체와 컴퓨터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이병철 회장은 다른 반도체 분야에 비해 기술 격차가 작고, 공정기술이 중요하고, 대량생산 제품으로 투자 회수기간이 짧아 재무자의 여력이 높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D램에 뛰어 들었다.

1983년 이 회장은 반도체 부문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도쿄선언'을 통해 반도체사업 진출을 전격 발표한다. 본격적으로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 삼성은 64KD램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기흥 반도체 공장 건설을 끝낸 삼성은 기술 개발 착수 발표 10개월만인 1983년 12월 미국, 일본에 이서 세계 세 번째로 64K D램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기술개발에 성공한 다음해인 1984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산업에 불황이 시작돼 1986년까지 한파가 계속됐다. 3년간의 불황 속에 반도체 비중이 비교적 낮았던 일본 기업과 달리 미국기업들은 D램 분야에서 철수를 시작했지만, 삼성은 매년 3천억원이 넘는 투자비를 소요하며 반도체 산업에 사활을 걸었다.

1986년 PC열풍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미국 업체들의 대일 반도체 반덤핑 제소 움직임으로 가격도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길었던 반도체 불



황은 끝이 났다.

불황 속에서도 투자를 계속했던 삼성은 1986년 256KD램의 제품을 출시하면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1년으로 줄였다. 그리고 마침내 1989년 2번째로 16MD램 개발에 성공하면서 일본을 추월하게 됐다.

놀라운 속도로 반도체 시장을 장악해가던 삼성은 1992년 10월 세계 최초로 64MD를 개발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으로의 자리를 굳건히 하게 됐다.

우리 나라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놀라운 발전 속도는 '황의 법칙'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2002년 국제반도체회로학술회의에서 삼성전자 황창규 반도체 총괄사장이 1년마다 반도체의 집적도가 2배로 증가한다는 '메모리 신성장론'을 발표했다.

D램 반도체 분야의 세계 제패로 승승장구하던 삼성은 지난해 10월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삼성의 50억 원 비자금 차명계좌 의혹을 폭로하면서 결국 이근희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등 새로운 변화의 기로에 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리빙 센스

건강한 두피 만들기①

▶삼푸는 하루에 한 번 머리는 하루에 한 번 감는 것이 두피 건강에 좋다. 자주 감지 않으면 모근이 막히고 두피에 노폐물이 쌓여 탈모가 생길 수 있으며, 너무 자주 감으면 머리카락이 푸석해지고 두피가 건조해진다.

▶아침보다 저녁에 감기 저녁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에 묻은 헤어 제품과 오염물질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고, 바쁜 아침에 비해 차분하게 두피 속까지 깨끗이 말할 수 있어 머리카락이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미지근한 물로 여러 번 헹구기 머리를 감을 때 물의 온도는 미지근하게 느껴지는 37도 정도가 적당하다. 두피에 삼푸나 린스 성분이 남아 있으면 탈모 또는 비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깨끗이 헹구고 마지막에 찬물로 마무리한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4월 23일 (음 3월 18일 쫓미)

子	36년생 중개인의 협조가 나타난 격이니 성공하는 격이다. 48년생 자신 있게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60년생 투자는 미루라. 72년생 모든 일에 신중 하라. 84년생 불연이던 애인과 이별도 할 수 있으나 서로를 존중하라. 행운의 숫자: 11, 38
丑	37년생 부부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서로를 존중하라. 49년생 오랜만에 좋은 협조자를 얻고 급진한다. 61년생 총이 변하여 길이 된다. 73년생 재산의 손실과 시비가 우려된다. 85년생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손이 줄어든다. 행운의 숫자: 20, 30
寅	38년생 직업과 재물에 불리가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50년생 부부사이 애정이 필요하다. 62년생 어려움을 없애 나 지루하다. 74년생 흥과 북이 교차하고 중중하니 기도하고 안정을 취하라. 행운의 숫자: 12, 34
卯	39년생 획기적인 자기노선에서 주변의 협조까지 얻으니 금상첨화이다. 51년생 현재의 위치에서 깊은 마음으로 받쳐줘 다시 돌아보라. 63년생 절대적 절대 실리를 찾아야한다. 75년생 오 늘은 평안하다. 행운의 숫자: 22, 32
辰	40년생 신고를 당하는 수도 있다. 52년생 처음부터 자존심을 버리고 화해 쪽으로 모색하라. 64년생 있는 것도 없는 듯이 조심하라. 76년생 천국이던 대화 매수를 불연하고 삼척만 남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21, 35
巳	41년생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는 형상이다. 53년생 점진적인 활동이 확실한 결과로 보일 수 있게 된다. 65년생 걱정을 버려라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내용이다. 77년생 중점을 잃지 말고 일에 열중하라. 행운의 숫자: 18, 28
午	42년생 희망의 전쟁은 계속 된다. 54년생 문서를 쥐고 있는 형상으로 제사가 손조롭다. 66년생 큰 계획으로 일해야 더욱 값진 수확을 얻으리라. 78년생 모든 일에 경이로운 진취가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14, 44
未	43년생 미리 신중한 계산을 유지하고 침착하게 살펴보라. 55년생 고령이 우려된다. 67년생 태인의 모략 사기를 만날 우려가 많으니 조심이 확실하다. 79년생 많은 조짐이 필요한 하루다. 행운의 숫자: 24, 16
申	44년생 지난 과거에 얽매지 말고 새로운 일을 취하라. 56년생 친구에게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라. 68년생 지난 문서를 버리고 새 문서를 읽는다. 80년생 좋은 음식은 이웃과 나누어 먹어라. 행운의 숫자: 17, 43
酉	45년생 외형적 속가 내 실속 재검정 하라. 57년생 서로서 이해하면 서로가 득이다. 69년생 내일을 위해서 인내함이 좋으리라. 81년생 하는 일에 감정을 만나니 가족에 협조를 하면 극복한다. 행운의 숫자: 01, 31
戌	46년생 생각하지 않은 협조자가 자재하니 적극성을 보여줘야 한다. 58년생 도둑이 예상되니 문단속을 잘하라. 70년생 마음의 변화를 생기기 기도하고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82년생 오늘은 눈을 감고 지내라. 행운의 숫자: 02, 42
亥	47년생 침체 속에 실리도 있으니 실망 말고 진행하라. 59년생 응기와 희망으로 추진하면 해탈도 무난하다. 71년생 외형은 가능한 방법으로 실리를 찾아서 축소해야 좋으리라. 83년생 오늘은 즐거우리라. 행운의 숫자: 23, 41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문의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광주 유단자회 리그전 포석의 요령 2보(11~28)

白 임상빈 6단 黑 박정규 5단

박정규 5단이 흑 11로 걸처가자 임상빈 6단은 또다시 백 12로 두칸 높은 협공을 하여 흑 15까지 좌하귀와 똑같은 모양이 나타났다. 고수들의 바둑에서는 상당히 드문 모양이다.

이로써 흑의 실리와 백의 세력지향으로 방향이 결정되었다. 한쪽이 극단적인 실리를 취하면 상대는 원하지 않더라도 세력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상대의 기풍에 따라 작전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임상빈 6단이 세력을 지향하자 박정규 5단이 이를 의식하여 흑 17로 두어 세력을 견제하고 나선다. 너무 실리만 밝히는 것도 어딘지 불안해지

는 것이다.

흑 19와 21은 극단적인 실리작전처럼 보이나 한편으로는 안전책이기도 하다. 상대가 그곳을 막게 되면 백의 모양이 커져 시달릴 염려가 있다.

포석의 요령은 맞보는 곳을 항상 남겨놓는 것이다. 좋은 곳을 모두 차지할 수는 없으므로 그에 버금가는 곳을 차지할 수 있도록 수순에 유의해야 한다.

흑 27이 생각할 수. 수로는 '가'에 두고 싶으나 '나'쪽이 비어 있어 그쪽은 상대의 처분에 맡기고 있다. 백 28까지 서로 어려운 출발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박영훈 물가정보매 우승 노려

박영훈 9단이 제4기 한국물가정보매 우승을 위한 첫 단추를 산뜻하게 꿰었다. 박영훈은 지난 21일 한국기원에 서 열린 이 대회 C조 리그에서 김기용 4단을 91수만에 불계로 제압, 리그 첫 승을 올렸다.

결승행이 예상됐던 김기용은 2패를 기록, 사실상 결승 진출이 불가능해졌다.

이어 벌어진 D조 리그에서는 이정우 6단이 목진석 9단을 217수 끝에 1집반으로 물리쳤다.

대회는 각자 10분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는 속기대전으로 치러진다. 상품은 우승 2천500만원, 준우승 1천만원. /오광복기자 kroh@

굿모닝 잉글리쉬 <1145>

When can we get the furniture out of storage?
언제 가구를 출고 받게 되죠?

A: When can we get the furniture out of storage?
B: Whenever you want.
A: I'm moving in on the 6th.
B: Well, let's just do it on that day then.

A: 언제 가구를 출고 받게 되죠?
B: 아무 때나요.
A: 제가 6일 날 갈게요.
B: 음, 그럼 그날로 정하십시오.

* 우리 언제 그 일을 마칠 수 있을까요?
= When can we finish the job?
* 사진을 언제 인화할 수 있을까요?
= When we have the pictures developed?
* 언제나 메어리 집에 갈 수 있을까요?
= When can we go to Mary's?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145>

君(きみ)は恐(こわ)くないの?
너는 무섭지 않니?

A: あ、地震(じしん)だ。
B: わあ、大變(たいへん)だ。どうしよう?
A: 大丈夫(だいじょうぶ)だ。大丈夫、もう終(お)わったよ。
B: ああ、びっくりした。君(きみ)は恐(こわ)くないの?

A: 아, 지진이야.
B: 와, 큰일이다. 어떡하지?
A: 괜찮아, 괜찮아, 벌써 끝났어.
B: 아, 깜짝 놀랐잖아. 너는 무섭지 않니?

大丈夫(だいじょうぶ)だ: 괜찮다, 염려 없다
終(お)わる: 끝나다
君(きみ): 너, 자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 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122>

她喜欢唱歌吗?
그녀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까?

A: 她喜欢唱歌吗?
她喜欢唱歌吗?
B: 喜欢。她会唱很多歌。
她会唱很多歌。
A: 她会跳舞吗?
她会跳舞吗?
B: 会。她还教我跳舞呢!
她还教我跳舞呢!

A: 그녀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까?
B: 좋아합니다. 그녀는 많은 노래를 부를 줄 압니다.
A: 그녀는 춤을 출 줄 압니까?
B: 춤을 압니다. 그녀는 나에게도 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喜欢 [xǐhuan] 좋아하다
跳舞 [tiàowǔ] 춤을 추다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762>

旌門 (정문)
깃발 정, 문문

정문(旌門)은 정려문(旌門), 또는 홍문(紅門)이라고 한다. 충신(忠臣)·효자(孝子)·열녀(烈女) 등을 표창하기 위하여 집의 문 앞이나 마을 입구에 세우던 문으로, 편액(匾額)에는 각각 표창하는 내용에 알맞게 충·효·열·직함·성명 등을 새긴다. 매년 연초에 해당하는 사람을 조사하여 조정에 보고하면 왕은 정문을 세워 주고 지방세나 군역(軍役) 등을 면제해주고 쌀과 의복 등의 상품을 주었다. 사실 정문을 세운 목적은 불효자들로 하여금 정문을 보고 뉘우쳐서 착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정문의 정(旌)이란 먼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만든 깃발이었다. '정'을 세워 다른 지역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하기 위한 표지였고, 임금이나 대신 등의 행차에 집인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정문의 벽은 백색으로 칠하고, 다만 4각에 세우는 기둥만은 붉은 색을 칠해 먼 곳에서도 알아보기 쉽게 하였다. 나중에는 간단하게 '홍살문'으로 대체하였는데, 홍살문은 붉은 칠을 한 9m 이상의 둥근 기둥 두 개를 세우고 위에는 지붕이 없이 화살 모양의 나무를 나란히 박아 놓은 것으로 한자로는 홍선문(紅箭門)이라고도 한다.

<한여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